

목 차

제1강	----- 복음서 읽기(1) -----	2
제2강	----- 복음서 읽기(2) -----	4
제3강	----- 복음서 읽기(3) -----	4
제4강	----- 사도행전1-16장, 갈라디아서 읽기 -----	6
제5강	----- 사도행전17-18:11, 데살로니가전후서 읽기 -----	7
제6강	----- 사도행전18:12-19:22, 고린도전서 -----	8
제7강	-- 사도행전19:23-20:3, 고린도후서, 로마서 1-6장 읽기 --	9
제8강	----- 사도행전20:3-28장, 로마서 7-16장 읽기 -----	13
제9강	--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	19
제10강	- 디모데후서(바울서신 끝), 공동서신(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전후서) -	23
제11강	----- 히브리서, 요한1,2,3서 -----	27
제12강	----- 요한계시록 읽기 -----	31

신약성경 읽기 총정리

제1강 복음서 읽기(1)

1.성경의 중요성

- 1)로마교와 개신교의 차이 : 성경의 권위.
- 2)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3)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2.신구약 성경 66권

- 1)구약 39 + 신약 27 = 66권
- 2)성경은 언약서이다. 구약은 옛언약, 신약은 새언약.
- 3)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다.
- 4)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 5)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 관한 기록이다.

3.사복음서 :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과 교훈

- 1)예수는 누구인가? 성인, 선지자, 하나님?
- 2)공관복음과 요한복음
- 3)시간개념(공생애 3년/ 유월절은 4번 지냄)과
공간개념(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4.탄생과 소년 시절의 기록(눅2:41-52)

- *역사적 사실 : 로마 식민지 시절,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림.
- *동방박사의 방문과 예물.
-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봉헌식을 함. (제물은 비둘기 한 쌍)
- *애굽으로 피난.
- *성육신의 의미.
- *12살에 부모와 친척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감.
- *헤롯성전.

5.예수의 공생애 시작

-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마3:13-17).
-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심(마4:1-11/ 세 가지 시험).
- *가나 혼인잔치(요2:1-11).
- *가버나움에 있다가 얼마 안 되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심(요2:13).

6.공생애 1년(첫 유월절, 예루살렘)

- *성전을 청결케 하심(요2:13-25).
- *많은 이적을 행하심(요2:23/ 8개월을 예루살렘에서 지냄/공관복음은 갈릴리 사역부터).
- *니고데모의 방문(요3:1-21).
-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4:4-42).
- *갈릴리로 이동하여 갈릴리 사역(왕의 신하를 고침. 요4:43,54/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마13:53-58).
-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마4:18-22).
-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눅4:31-37).
-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막1:29-39) 중풍병자를 고침(눅5:17-26)
- *갈릴리 1차 전도(막1:38-39).

7.공생애 2년

-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유월절(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침. 요 5:1-47).
- *갈릴리에서 12제자를 확정하심(마10:1-4).
- *산상수훈과 비유의 말씀(마5:1-7장).
-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눅7:2).
-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부터 예수를 죽이려 한다.
-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비유(눅7:31-35).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11:20-30).
- *옥합을 깨뜨린 여인(눅7:36-50).
-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고치심(마12:22-37).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함(마12:38-45/ 요나의 표적 밖에는).
- *13개의 비유를 베푸심(마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눅12:16-20 어리석은 부자/ 눅12:42-48 청지기 비유).

- *바다를 잔잔케 하심,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자를 고치심(마8:23-34).
-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눅8:40-56).

제2장 복음서 읽기(2)

8.공생애 3년

-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계속 갈릴리에 계셨다.
- *오병이어(3년째 4월초/ 요6:1-15).
- *바다 위를 걸으심(마14:22-34).
- *장로의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막7:1-23/ 대중에서 제자들 중심으로).
-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막7:24-30).
- *데가볼리에서 4천명을 먹이심(마15:9-39).
-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질문과 대답(마16:13-28).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첫 번째 수난 예고.
- *변화산 사건(눅9:28).
-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막9:14-29).
-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는 다툼(막9:33-35).
- *목자와 양에 대한 강론(마18:12-14/ 잃은 양 하나 찾는 목자).
- *용서에 대한 강론(마18:21-35/ 일흔 번씩 일곱 번).

제3장 복음서 읽기(3)

- *예수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다음해 4월 16일 유월절에 죽기까지 6개월 간 마지막 여행이다.
- *사마리아를 통과하심(눅9:51-56).
-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침(눅17:11-19).
-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남(눅9:57-62/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 *70인 전도단을 둘씩 짝 지어 배뢰아 지방에 파송하심(눅10:1-12).
- *초막절 중간과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심(요7:14-8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10:25-37).

*마리아와 마르다(눅10:38-42).

*주기도문과 기도를 가르치심(눅11:1-15).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요9:1-4/ 3년 11월 말에서 12월 25일 사이).

*수전절에 성전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 설교하심(요10:1-30/ 3년 12월 25일).

*나사로를 살리심(요11:1-27).

*에브라임 산지에 피신하심(요11:54-57).

*베뢰아에서 마지막 3개월(18년간 혀 꼬부라진 여인을 고침. 눅 13:1-17/수종병을 고침. 눅14:1-6).

*베뢰아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음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함(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불의의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좁은 문. 눅13:22-33/ 포도원 품군의 비유. 마20:1-16).

*베뢰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남(눅 19:1-10).

***마지막 일주일**

*토요일 :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요12:1-8).

*일요일 :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눅19:29-48).

*월요일 : 두 번째 성전 청결(막11:11-19) 무화과나무 저주(마21:18-22)

*화요일 : 감람산 강화(마21:12-25).

*목요일 :

1)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요13:1-30)

2)성찬식(마26:26-30)

3)다락방 강화(요13:31-16:33)

4)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요17장)

5)겟세마네 기도와 예수의 체포(마26:36-56)

*금요일 : 빌라도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마27:1-66/ 요18-19장).

***부활하심(요20장)**

*승천하심(행1:1-11)

제4장 사도행전1-16장, 갈라디아서 읽기

1.복음서와 사도행전 중간지대

- 1)부활 후 사건들(베드로의 사명. 요21장/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마 28:16-20).
- 2)승천하심(행1:1-11) .
- 3)약속을 기다리라(행1:14).
- 4)승천 후 일주일이 오순절이다.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한다.
- 5)창11장에 나뉘었던 언어가 사도행전2장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
- 6)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지 기록한다.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13-28장은 바울을 주인공으로 이방 교회 설립에 관해 기록한다.
- 7)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이다.

2.사도행전 읽기

<초대교회의 시작과 베드로의 활약>

- *1장 : 예수는 승천하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다. 120명은 12제자와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 베뢰아 파송된 70인 전도대 등이다.
- *2장 : 유월절 이후 50일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다. 50일 전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사건이 디아스포라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된다. 베드로는 예수 사건을 해석하는 설교를 한다. 그날 회개하는 사람이 3천명이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다.
- *3-4장 :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앓은뱅이를 고친다. 5천명이 믿는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다.
- *5장 :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정화된다. 핍박에도 교회는 더 강해진다.
- *6-7장 : 구제로 문제가 생긴다. 일곱 집사를 선출한다. 스테반이 설교하고 순교한다.
- *8장 : 빌립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구스 내시에게 전도한다.
- *9장 :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한다.
- *10장 : 베드로가 순회전도 한다. 옵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 가서 백부장의 집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한다.
- *11장 : 복음이 안디옥에 전파된다. 헬라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다.
- *12장 : 헤롯 아그립바1세가 죽는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

<바울의 활약으로 세워지는 이방인 교회들>

1)바울의 선교여행의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이다.

2)바울의 1차 선교여행(행13-14장) :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앓달리아- 안디옥

3)예루살렘 종교회의(행15:1-35) : 주제는 율법이나, 복음이나? 이방인이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4)제2차 선교여행(행15:36-18:22) :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네압볼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로도-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바울은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하고 2차 선교여행을 한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간다.

5)갈라디아서 읽기 : 2차 선교 때 고린도에서 기록(54-57년).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혹은 마게도냐)에서 기록.

제5장 사도행전17장-18:11, 데살로니가전후서 읽기

*데살로니가 전도(행17:1-3) :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 예수의 고난과 다시 살아나심.

*베뢰아 전도(17:11) :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아테네 전도(17:16-18) :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다.

*고린도 전도(18:1-10) :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교회를 개척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 바울은 소동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일찍 떠났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 두었다. 6개월 후 그들이 고린도로 내려올 때 바울은 그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편지한다. 이즈음에 갈라디아서도 썼다고 본다(혹은 3차 선교 때 쓴 것으로 보면 에베소나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전후서 읽기>

1)데살로니가 : 항구 도시이고 대부분이 헬라인이나 상당수 로마인과 유대인이 함께 살았다. 상업이 발달하고 헬라 문화가 발달했다. 3주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다.

2)데살로니가서 : 50-61년에 기록된 바울의 최초의 서신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제이다.

*살전4:16-18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5:1-2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살후3:11-12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제6장 사도행전18:12-19:22, 고린도전서

1)바울의 3차 선교여행(행18:23-21:16)

*안디옥-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3차 선교의 중심지. 고린도전서 기록)- 미둘레네- 앗소- 드로아- 빌립보(고린도후서 기록)- 데살로니가- 베뢰아- 고린도(3개월 동안 과동하면서 로마서 기록)- 베뢰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앗소- 미둘레네- 밀레도-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체포됨)

2)바울의 에베소 사역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아볼로를 고린도에 파견한다.

*약 3개월 간 회당에서 전도한다.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2년간 제자들을 가르친다(행19:9-10).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 방언하고 예언한다(행19:7).

*바울을 통해 능력이 나타난다. 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나간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은화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사른다.

*은장색의 소요가 일어난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신(대지의 신)을 숭배했다. 은장색들은 아데미 신전의 모형과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자들인데 바울의 전도로 영업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3)고린도전후서 기록 : 고린도교회에서 스테바, 브드나도, 아가 3명을 에베소에 보내서 바울에게 질문한다. 바울의 답변이 고린도전서이다. 고린도전

서를 보낸 후에 문제가 또 생겼다. 이번에는 거짓교사가 들어와서 바울을 무시하고 교회를 흔든다. 바울은 급히 고린도교회를 방문하지만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와서(슬픈 방문) 고린도교회를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낸다. 이런 와중에 에베소에서 은장색의 폭동이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기다린다. 다행히 고린도교회가 질서를 찾아간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이다.

<고린도전서 읽기>

*고린도 : 로마의 식민지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다.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여행과 무역의 요충지이다. 부유하고 문명이 발달했으나 부패한 도시이다. 미의 여신 비너스를 숭배한다. 매춘한다는 뜻의 코린티아조마이는 고린도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고린도교회 : 주후 50년경, 2차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가 생겼지만, 회당 옆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 옮겨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결과 많은 회심자를 얻고 고린도교회가 생겼다. 동역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베뢰아에서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이다.

*교회 분열(원인과 처방)

*교회의 도덕적 혼란(근친상간, 불신자들 앞에서 송사, 도덕적 방종)

*자유 남용에 대해서(6장)

*결혼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우상 제물의 문제

*공중예배의 문제

*성만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

*고린도전서13장(사랑장)

*부활에 관해서(고린도전서15장)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체 헌금에 관하여(16장)

제7장 사도행전19:23-20:3, 고린도후서, 로마서(1-6장) 읽기

*바울은 은장색의 폭동 사건으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한다(행 20:1).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 :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린다. 디도 편으로 고린도교회를 엄히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고린도교회

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지가 궁금하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2:4). 감사하게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교회가 회개하고 질서를 찾아간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바울과 고린도교회가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는 극적인 기쁨 속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이다.

<고린도후서 읽기>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 : 고린도전서를 보내 후에 근친상간(고전 5:2-13)를 두고 분열이 일어난 것 같고(회개한 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보다 용서를 권함), 유대주의 거짓교사들이 고린도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손상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 바울은 1-4장, 10-13장에 걸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다.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준비** : 바울은 약 8개월 후 고린도교회를 방문하는데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한다. 8개월 동안 일루리곤까지 윗지방을 다녀서 복음을 전했다(로마서15:18-19)

***1:8-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2:4절**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3:1-3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 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4:7-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를 죽음에 몸예 짊어짐은 예수들의 생명이 또 한 우리 몸예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6:4-10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8:1-3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로마서 읽기>

*로마서에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다. 척추와 같고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책이다.

*로마서 기록 : 바울은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과동하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한다(행20:2-3). 바울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갈 계획이다(로마서15:22-29).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 온 1,2,3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평가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로마서15:18-19).

*일루리곤은 마게도냐의 서쪽 끝이다. 로마 바로 전에 있는 아드리아해 동쪽 지역이다. 바울은 선교의 일단락을 마쳤다고 거듭 주장한다. 새 계획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다.

*1: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20-21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28-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 하느니라.

***2장(하나님의 심판)**

*2: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2: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2: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3: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10-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21-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3:23-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24-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17-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6:12-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8장 사도행전20:3-28장, 로마서 7-16장 읽기

<로마서 읽기 7-16장>

*율법은 선하나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이다.

*7: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7: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7: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 *7: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 *7: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8: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8: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8: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8:29-30절(구원의 서정).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8:35-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9: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 *9: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 *9: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 *9: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 *10: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 *10: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11:11-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2: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3: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3: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13: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13:12-14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1-2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15:1-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16:1-2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16:3-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행전 읽기 계속>

*바울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 주러 갔다가 체포당하고,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후송된다.

*예루살렘 행

1)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베뢰아, 데살로니가, 더베, 에베소에서 온 동역자들과 누가, 디모데까지 동반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돈을 다루는 문제라 증인들과 함께 한다. 이방교회의 대표로 동행한 것이다.

*행20:1-3절.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한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행20: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행20: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2)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행20:17-1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행20:23-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

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단을 조심하라. 목양하라. 생활의 본을 삼아라)

3)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는 예언을 듣는다. 이런 경고를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행21:3-4절.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러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행21:8-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행21: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행21:13-14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4)예루살렘에서 체포, 로마행(21:17-끝)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돈- 배 타고 구르보섬 오른쪽으로 돌아- 무라- 니도- 살모네- 라세아- 미향- 델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압비오저자(광장)- 삼관- 로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화평을 위해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 결례를 위한 비용을 내고 함께 금식한다. 유대인 금식이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의 이방인 금지 구역에 침입했다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성전오염은 심각한 죄이다.

*행21: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성전에서 바울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법정 판결도 없이 현장에서 바울을 죽이려 했다. 그 때 로마의 천부장이 그들을 구조했고, 산헤드린이 소집되었고, 바울은 바리새인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자 바리새파는 바울편을 들므로 사두개파와 분열된다.

5)가이사랴로 이송

*행23:11절.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행23: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 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된다. 미결수로 2년간 감옥에 갇힌다.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뇌물을 받을까 하여,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소송처리를 연기한다.

*행24: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임기를 끝내고 베스도 그 후임으로 온다. 베스도는 바울의 기소 이유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심문하자고 제안한다. 바울은 암살 위험과 로마행의 지연될까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요구한다.

*바울은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하러 온 아그립바왕에서 간증한다.

*행26:22-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6)드디어 로마를 향하여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대동하고 떠났다. 특별대접을 받았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로마까지 정기적으로 죄수들을 운송하는 일이 있었다.

*행27:10-11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

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행27:22-24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행28: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7)로마에서 1차 구금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구금된다. 행28:30-31절에 보면 비교적 자유롭게 옥중생활을 한다.

*행28: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행28:30-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9장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바울의 1차 구금(주후6-62년) :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은 1차 로마에 구금된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 수 상태이다. 당시 미결수는 집을 얻어서 살 수 있었고, 약간의 제한만 받았다.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가르쳤다.

*이때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이다.

*바울의 일명 4차 선교여행(주후 62-66년) : 2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 풀려난다.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4-5년간 활동한다.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전도활동을 계속했다.

*이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게 하는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이다.

<골로새서 읽기>

*골로새에는 혼합종교가 만연하고, 주전 2-3세기 경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온 유대인들이 많았다. 유대주의와 혼합종교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다. 또한 골로새교회를 위협하는 할레당, 의식주의, 천사숭배 등의 헛된 속임수나 철학을 조심하라고 한다.

*골1:15-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1: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1: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1: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2: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2: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2:18절. 아무도 꾸며낸 겉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빌레몬서 읽기>

*바울은 골로새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난다. 바울은 두 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한다. 빌레몬은 많은 노예를 소유한 골로새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다.

*10-12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17-18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에베소서 읽기>

*골로새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라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교리서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몸, 건물, 그리스도의 신부 등으로 비유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1장)

*1: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1: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1:22-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2:20-23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4: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교회 일치).

*4: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6:10-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빌립보서 읽기>

*빌립보교회는 로마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고 선교비를 전달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병이 들어 근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후 그를 다시 빌립보교회로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한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교제를 통해 굳건하고 겸손하라고 권고한다.

*1: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3-5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4: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읽기>

*바울은 에베소교회를 담임하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교훈한다. 1차 투옥 후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쓴 편지이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와 목회의 실제적인 교훈들을 기록한다.

*1:3-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6:11-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도서 읽기>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다.

*기록 동기 :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와 그레테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각각 보낸다.

- ***디도** :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갔다가 디모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 ***내용** : 교회의 조직,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직무에 대해 교훈한다. 중요 교리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믿음과 행함,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선행을 아울러 강조한다.

- *1: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 *1: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제10장 디모데후서(바울 서신 끝), 공동서신(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전후서)

<디모데후서 읽기>

- *64년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다. 새 로마를 건설하고 싶다는 이유인데 미친 짓이다. 이 화재를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기독교인을 마구 잡아들인다. 이 때 바울은 다시 투옥되었다. 1차 투옥 시 셋집에 머물던 것과 다른 감옥이다.
- *바울은 68년경 로마에서 약 5킬로미터 떨어진 오스티안 가도에서 참수당한다. 바울의 2차 감옥생활을 말해주는 최후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이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이 죽은 후에 복음을 굳게 지킬 것을 호소한다.
- *1:6-7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 *2:2-6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

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4: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4: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4: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야고보서 읽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 동생으로 주님의 생존 시에는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충성된 제자가 되어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주후 62년에 순교한다. 야고보서는 믿는 바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권면한다.

*1:2-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1: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2: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5: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5: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5: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

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5:17-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유다서 읽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1: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읽기>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주후 68년)에 기록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삶이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고 내세를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내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다.

*1: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1: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18-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4:1-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4:12-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읽기>

*베드로전서가 외부적인 위기 즉 박해를 다룬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적 위기 즉 거짓교사를 경계하라고 한다. 교회 안에 거짓교사들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재림에 대해서도 의심하며 재림을 대망하며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을 조롱한다.

*1: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5-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2:1-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3: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3: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3:12-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제11장 히브리서, 요한1,2,3서

<요한일서 읽기>

*요한의 서신은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 쓴 것이다. 당시 예비온파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반대로 영지주의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다. 영지주의는 선신과 악신의 이원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다.**

*요한복음1:1-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1:12-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1: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1:1-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2: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일서4:2-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일서4:10-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4: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5:11-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 읽기>

*요한이 85-95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한다.

*1:10-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삼서 읽기>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이다. 요한이서를 쓰고 에베소에서 90-95년경에 기록한 것 같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으라.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9-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

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읽기>

*기독교에 대한 배교를 경고하기 위해 기록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박해가 심해지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다. 히브리서 구약성경을 잘 아는 저자(미상)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독교를 따를 것을 교훈한다.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로 생각한다.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소개한다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신 그리스도

*1:1-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1:13-14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영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자이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성육신

*2: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

려 하심이라.

*2: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3:5-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므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4:14-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7:1-2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7: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7:26-27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참 성소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8:1-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

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소와 지성소**

*9: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9: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온전히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10:11-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와 끈기로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한다.

*11:1-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2:1-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12장 요한계시록 읽기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 광산 노동자로 일했고, 당시 아시아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다. 가혹한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한다.

*요한이 본 환상이고 예언의 책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의 세력이 멸망당할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실현된다. 환난과 핍박,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백보좌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1:13-16절. 쫓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4:2-7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5: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5:9-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일곱 인을 떼심(6장)**

*여섯째 인을 떼심(6:12-17)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

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십사만 사천의 이스라엘(7장)**

*7: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7:9-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일곱째 인을 떼심과 일곱 나팔 재앙(8-11장)**

***여자와 큰 붉은 용(12장/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

*12: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12:7-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찢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두 짐승(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함/13장)**

*13: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첫째 짐승).

*13: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둘째 짐승).

***어린양과 십사만 사천(14장)**

*14: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일곱 대접의 재앙(16장)**

***큰 성 바벨론의 멸망(18장)**

*18:2-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어린양의 혼인잔치(19장)**

*19:1-2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19:7-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19: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백마를 탄 자(19:11-16/ 그리스도의 재림)**

*19: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9: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마겔돈 전쟁(19:17-21)**

*19: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19: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20:1-3)**

*20:1-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20: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20: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사단의 최후 심판(20:7-9)**

*20:7-8절.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백보좌 심판(20: 11-15절)**

*20:11-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전천년설(천년왕국 전 재림) : 전천년설은 둘로 나누는데, 휴거와 재림이 일치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휴거(대환난전) 후 재림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천년왕국 후 재림)

*무천년설(천년왕국을 초림부터 재림까지 영적으로 해석)

*종합 :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고, 신약성경 전체를 읽으면 무천년설이 맞는 것 같음. 우리교단(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대부분의 칼빈주의는 무천년설을 믿음.

*무천년설은 재림은 한 번이고, 재림과 휴거는 동시 사건이고, 재림하

면 즉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부활하고, 즉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백보좌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

*역사적 천천년설은 재림과 휴거는 동일한 사건이나, 믿는 자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사단이 잠깐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불못에 갇히고, 천국왕국 후에 악인이 부활하고, 백보좌 심판이 있다.

*재림과 부활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요한계시록20-21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정말 황홀하다.

***새 하늘과 새 땅(21장)**

*21: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1: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풍성한 영광의 상태(22장)**

*새 예루살렘의 생활(22:1-5절)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라. 영광과 승리의 날이 속히 오기를!

*22: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2: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